

PEOPLE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취임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 약속”

제21대 광주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박성주 치안감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다짐했다.

박 청장은 18일 취임사를 통해 “나고 자란 광주에서 다시 한번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광주경찰의 일원으로서 모두와 함께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지향점으로 삼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직재편을 단행한 만큼, 141만 광주시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에 응답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활동으로 광주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약성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사범이 시민의 일상 깊은 곳까지 침투, 사회를 차츰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형사기동대 등 현장 조직을 심분 활용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하고, 범죄취약지 분석을 통한 가시적 순찰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날로 복잡해지는 범죄 양상과 더불어 범죄수사, 재난대응 등 다양한 치안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으로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청장은 광주 광덕고와 경찰대학 5기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입관해 경기 남부청 중원경찰서장·서울청 강서경찰서장·광주청 제2부장·울산경찰청장·경찰인재개발원 등을 역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관형 광산경찰서장 취임

“주민 안전 우선…현장 치안 활동”

이관형 신임 광주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서장은 “교통·산업 중심지인 광산경찰의 일원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 확보’가 광산경찰의 최우선 과제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치안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당당하고 든든한 경찰이 돼 지역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공주 출신인 이 서장은 1999년 경찰에 입관해 충남경찰청 청양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해화경찰서장·치안정보분석과장,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등을 거쳤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송원대 ‘미용사 국가시험장’ 선정

송원대학교가 광주 남구에서 유일하게 미용사 일반(헤어) 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14회차 상시검정’이 지난 16일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실습실에서 진행됐다. 박장순 미용예술학과장은 “지역의 예비 미용인재들의 자격을 검정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송원대에서 진행돼 매우 기쁘다”며 “미래 K-미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원대 미용예술학과는 효과 인성을 겸비하고 미용학 전공지식을 갖춘 우수 미용 교육자와 역량 있는 미래형 미용산업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미용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담양 대대포 죽향도가’, 남도 우리술 품평회 대상

탁주·증류주 등 4개 부문 37개 출품··9개 우수 제품 선정

담양 죽향도가의 ‘대대포 (blue) 죽향도가’가 남도 우리술 품평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에서 2024 남도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해 올해 최고의 우리 술로 마걸리 부문 출품작인 담양 죽향도가의 ‘대대포 (blue) 죽향도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 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등이 주관·후원한 이번 행사엔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김병기 추진위원장, 출품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전남 술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2022년 남도 우리술 품

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해남 삼산주조장의 해남찰살생막걸리 9도가 고도탁주 부문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탁주, 증류주, 약·청주, 기타,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품평회엔 전남 24개 양조장에서 37개 제품이 출품됐다.

주류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리 농산물 사용, 품질인증, 색과 맛, 향, 질감, 디자인 등을 평가해 종합대상 1개 품목,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4개 제품 (4개 주종 중 총 9개)이 선정됐다.

종합대상을 차지한 ‘대대포 (blue) 죽향도가’는 유기농쌀 100%에 천연별곡을 사용해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우리 농산물 사용, 맛, 향 등에서 평가위원의 극찬을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마걸리 장흥 까치살 (안양

주조2공장)의 ‘숲향버섯 술도깨비’, 증류주 담양 ㈜추성고을의 ‘추성주’, 약·청주 나주 남도탁주의 ‘나주배약주’, 기타 나주 ㈜페어리플레이의 ‘이제·배로만들다’가 선정됐다.

부문별 우수상은 마걸리 나주 다도참주가의 ‘참주가생막걸리’, 증류주 진도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의 ‘진도홍주58’, 약·청주 담양 ㈜죽향도가의 ‘천년담주’, 기타 광양 ㈜백운주가의 ‘백운복분자주’가 차지했다.

시상식은 11월 예정된 제1회 남도주류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이뤄진다. 대상과 최우수상 등 5개 제품은 마케팅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전남도직거래장터근간지, 국제남도를 식문화근간지 등 홍보보수 운영과 각종 행사 건배주·만찬주 추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죽향도가는 종합대상과 약·청주부문의 출품작인 ‘천년담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남도 우리술 품평회 대상을 차지한 ‘대대포 죽향도가’

국립목포대, 국립대학육성사업 평가 ‘A등급’

2년 연속··우수한 교육혁신 성과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송하철·사진)는 교육부 주관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대학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적 혁신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목포대는 자율전공학부 모집인원의 확대, 학생의 전공선택권 100% 보장, 이론과 경험을 융합한



교육과정 설계, 해외대학과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확대, MNU 함성(함계 성장·성취·성공) 교양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맞춤형 학습 제공 등 우수한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목포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치주환 기획처장은 “국립목포대는 앞으로 호남계주권 종합국립대학 중 취업률 1위 대학으로서 프로젝트 기반 학생 중심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해 학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 전남귀어스물엑스포 성료

14개 어촌계·도시민 150여명 참여

전남도는 지난 17일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2024 전남귀어스물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전남귀어스물엑스포는 귀어를 하고 싶어도 어촌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도시민들과 인구 감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의 우수 어촌을 한 자리에 만나게 하는 장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는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등록한 귀어 희망 도시민 150여명과 여수 안포·화태·금봉, 진도 신기, 해남 일하·송호, 고흥 우두·신평, 강진 수안·수마, 영광 설봉·구수대신, 보성 석간, 장흥 신리 등 전남의 우수 어촌계 14곳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귀어귀촌종합센터, 전남도 귀농산이촌종합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제과센터 등이 부스를 설치해 금융 상담, 스마트 양식 교육 프로그램 안내, 귀어귀촌정책 및 지원 방안 안내, 여수 금봉골 폐각 아트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흥 신리 어촌계, 해남 송호 어촌계, 여수 안포 어촌계, 고흥 신평 어촌계 등은 현재 개발하고 있



지난 17일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2024 전남귀어스물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거나 시판하고 있는 매생이 스낵, 전복 스낵, 감태 오란다, 마음미역 등 시식 행사를 진행해 전남 어촌의 자체 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전남의 우수 귀어인 장문석·정종훈·정근영·박민호씨 등이 귀어 노하우를 설명해주는 부스도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영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와 유관기관들은 전남 어촌으로 귀어를 희망하시는 모든 도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정착해 제2의 인생을 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촌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세대가 정착하는 활기 넘치는 전남 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성군은 최근 장성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헌화 및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장성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열어

장성을 평화의 소녀상서 헌화·추모

장성군은 최근 장성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헌화 및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성평화회의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한중 장성군수, 전남도·장성군 의원,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 회원 등이 함께했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살아생전 기자회견으로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군은 지난 2018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소녀상이 세워진 장성역 앞에서 매년 기념식을 갖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어르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현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초등학생 든든한끼’ 식사 지원

전남개발공사가 여름방학기간 동안 나주시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든든한끼 식사를 지원한다.

공사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내 이점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생 든든한끼’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증식 제품을 통해 지역상생을 실현하고 지역 도시리태달업체와 연계해 음식을 만들고 배달을 해 일자리 지원도 한다.

지원대상은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초등학생 60명이며, 점심 식사 지원만이 아닌 각 기관만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업무협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돌봄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안전키트 설치와 전기·가스·소방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초등학생 맞춤형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며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3사가 힘을 합쳤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책과 함께 떠나는 피서여행 새마을문고광주광역시동구지부(회장 주정주)는 최근 동구 관내를 찾은 여름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도서대여를 실시해 독서함양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신기동 주민들, 광산구 미화원 수박화채 응원 광주 광산구 신기동 주민 및 사회단체회원들은 16일 월전동 생활환경종합센터를 찾아 시설관리공단 청소노동자 200명에게 수박화채를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신기동 주민들, 광산구 미화원 수박화채 응원